

# 근로정신대 피해 다룬 日 연극 '봉선화' 광주 온다

### 광주문화재단, 강제동원 시민모임 등 日 3개 기관과 협약 2002년 나고야 첫 공연 후 큰 호응...올해 '봉선화 3' 무대 "한국인 아픔 공감하는 노력, 평화의 미래 위한 기폭제 되길"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해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근로정신대 피해를 다룬 일본 연극 '봉선화'가 광주 무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봉선화'는 지난 2002년 나고야에서 첫 공연된

이후 지난해 '봉선화 2'가 공연돼 일본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치 현민의 손에 의한 평화를 바라는 연극 모임'이 기획했으며 나가 토시오가 감독을 맡았다. 광주 공연은 빠르면 올해 안 '봉선화 3'으

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문화재단은 9일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공동대표 다카하시 마코토),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사장 이국인)과 문화예술교류 협약을 재단에서 체결했다. 이들 3개 기관 협약은 '봉선화'를 광주에서 공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식에는 광주문화재단 황봉년 대표이사를 비롯해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인 이사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국제 문화예술교류 협력을 매개로 광주정신의 핵심인 민주·인권·평화 운동을 실천 하자는 취지와 연계돼 있다.

황봉년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봉선화'를 무대에 올린 일본 시민단체와 예술인들의 노력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난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공감하기 중요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협약은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3개 기관은 한일 양국 문화예술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광주문화재단과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9일 문화재단에서 문화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광주 무대에 오르는 일본 연극 '봉선화' 공연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을 지원하는 회는 1998년 양심적인 일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했으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회이다. 설립 직후 1999년부터 20여년간 한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을 돕는 일을 해왔다. 지난 2021년 설립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강제동원 피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 권리구제와 명예회복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자연이 새긴 예술... 오묘한 수석의 세계

### '여석동락 6인의 수석세계' 전 11~13일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자연이 돌에 새긴 모습이 신비롭다. 포효하는 곰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절경도 만날 수 있다. 인공적 요소가 가미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오묘한 수석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與石同樂(여석동락) 6인의 수석세계' 전시 11일부터 13일까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열린다. 정하숙·유용상·이동욱·박태완·박행수·김정균 회원이 참여했다. 지역에서 협회가 아닌, 그룹이 전시회를 여는 경우는 드물다. 유용상 회원 등 4명은 3년 전 전시를 열었고 김정균·정하숙 회원은 올해 새롭게 전시에 참여했다.

회원들은 각각의 색상을 통해 모두 120여점의 수석을 선보인다.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문양석, 기묘모양한 형상석 등 다채로운 수석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작들은 대자연의 온갖 풍경을 연상시키고, 기묘한 형상으로 추상적인 미적 세계를 표현한다.

수석에는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함께 담긴다. 자신만의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각각의 돌마다 각각의 사연이 스며 있다. 수석 한점 한점에 스토리를 쌓고, 자신만의 예술품으로 만들어간다.

전시 출품된 수석들은 각 회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해 선보인다. 회원들은 '소통방식에 있어 이미지를 통해 텍스트를 이해시킨다'는 의미



이동욱 회원의 수석.

를 담아 '일러스트 수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누구나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쉽고 친근한 수석'을 선보인다. 수석 뿐 아니라 공예의 진수를 보여주는 좌대 등도 또 다른 볼거리다.

회원들의 수석사랑은 남다르다. 유용상 회원은 "돌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세상의 허무를 밀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했고 정하숙 회원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모습이 수석의 매력"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신안에 문을 연 '1004석 수석미술관'에 수석을 기증한 박행수 회원은 "한 때 집에 놓아둔 돌이 보고 싶어 서둘러 귀가하곤 했다"며 "기묘모양한 수석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다.



김정균 회원의 수석.

이동욱 회원은 "수석 전시가 활발히 열리는 타 지역에 비해 우리 광주에서는 예술 수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며 "수석인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방문해 수석의 매력을 느껴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시 관람은 무료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문의 010-3612-478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생명의 아름다운 공존

### 조성숙 개인전 9일~4월 8일 무등현대미술관 100호 이상 대형 회화·설치 등 40여점 선보 18~19일 '나만의 자연토텐 만들기' 진행도

푸른 자연 속에 등장한 사슴은 많은 생명체를 품고 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이의 모습과 자유롭게 뛰노는 노루, 풀과 나무들이 어우러져 '함께' 사는 세상을 이야기한다. 작품 '13월의 시'가 펼쳐 놓은 풍경 역시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생태와 생명, 여성에 대한 주제로 작업해온 조성숙 작가 개인전이 오는 9일부터 4월 8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린다.

17회 개인전인 이번 전시의 주제는 '공존의 시간, 식물성'이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생명, 자연, 식물성을 강조하며 모든 생물의 상호 연결성에 공존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구성은 평면과 설치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진 형태로 100호 이상의 대형 회화부터 도자 회화 설치까지 40여점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특히 설치 작품은 자연 구조물 위에 인류의 오랜 토�텐들과 모자상들을 진열한 형태로 구성했다.

다양한 생명체는 지구 초기 단계부터 모든 형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생존을 위해 서로 의존해 왔다.

작가는 전시를 통해 자연성과 여성성의 공통적 요소인 '생명을 품어내고 길러내는 본성'이 '예술의 본성과 맞닿아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전시에서는 '무등산가 달항아리', '모자상' 등 다양한 도자작품도 만날 수 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오는 18~19일(오후 2시~4시30분) 이틀 동안 총 4회, 정원 40명으로 진행되는 '나만의 자연토텐 제작하기'는 인류의 원형적 토�텐들과 생명, 자연환경에 대한 주술적 대상들을 엮어 및 친환경 재료를 활용해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조작가는 광주시미술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서울, 광주, 미국, 중국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사슴섬- 빛의 선물'

## 목포서 '어린이 해양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 4월 8일·15일 목포해양유물전시관...31일까지 접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해양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바다를 연계로 한 유구한 역사는 오늘날 문화를 이루는 데 토대가 됐다.

해양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린다.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2회 어린이 해양문화유산 그리기 대회'가 그것.

목포시에 자리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오는 4월 8일과 15일 오후 1시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대회를 연다. 인터넷 사전접수는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참가 어린이들은 대회 당일 전시관을 관람하고

우리나라 바다에서 출수된 선박을 비롯해 도자기, 무기류 등의 전시 유물 등을 관람하고 자유롭게 작품을 그리면 된다.

참가는 모두 3부문으로 돼 있다. 유치원생(만 4~6세), 초등 저학년(1~3학년), 초등 고학년(4~6학년)으로 나뉘며 각 부문별 선착순 150명(인터넷 사전접수 각 100명, 현장접수 각 5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결과는 오는 4월 21일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5월 5일 어린이날 개최되는 문화행사에서 48명을 선정해 상장과 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도립미술관 참여형 예술교육 확대 운영

### 어린이 아틀리에 '어린이 특화 교육'·'전시 연계 교육' 등

'미술관은 내 친구' 전남도립미술관(관장이지호)이 어린이 특화 교육과 전시 연계 교육 등 참여형 예술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미술관 2층에 위치한 어린이 아틀리에에는 오는 3월 말부터 주말 어린이 특화 교육을 진행한다. '어린이 책 속 예술 나라'를 콘셉트로 해외 예술가들의 책을 함께 감상하며 기본 조형의 원리를 이해하는 예술 활동이다. 순수 조형 요소를 이해하고 색과 모양을 재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나만의 화면을 구성해 봄으로써, 어린이들의 입체적·공간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주말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여 대상은 6~7세와 8~10세 두 그룹으로 나눠 매주 일요일, 1일 2회 정기 운영한다. 사전 예약을 통해 총 18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어린이 아틀리에에서는 전시 연계 교육이 이루어진다. 진행 중인 미술관 기획 전시의 작품을 새롭게 이해하고 재창작하는 과정으로 ▲ 태블릿 PC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 전

시 연계 활동지 교육 두 가지로 구성됐다. 디지털 교육은 태블릿 PC로 작품 미션을 수행하면 실시간으로 화면에 반영되는 실감형 체험교육이다. 또한, 전시 연계 활동지는 전시에 대한 주제와 작품 감상법 등의 학습을 위해 비치된 안내 자료에 따라 스스로 그림을 완성하는 교육이다. 어린이 아틀리에에는 상시로 개방돼 있어 어린이·청소년·성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누리집 공지사항 확인.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자녀와 스포츠·문화 관람 인증 이벤트

### 광주여성가족재단-아이키움 플랫폼 4월 15일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4월 15일까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가족과 함께하는 스포츠·문화 공유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이벤트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자녀와 함께 광주FC, KIA타이거즈 경기 관람 또는 광주패밀리랜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무등산 등 문화·관광명소 방문 후기를 인증사진과 함께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소문방에 게시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50가정에 치킨

기프트콘을 제공하며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에서 4월 21일 발표 예정이다.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에서는 성평등 양육 가치관 확산 및 임신·출산·양육부터 일·생활 균형까지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정책과 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각종 정책 상담, 서비스 이용 예약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성평등 육아챗봇과 칼럼, 카드뉴스 등 다양한 양육 콘텐츠도 제공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